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형태적 사동’ 연구

유영관* · 유석** · 김건희***

(강원대학교)

Yoo, Yeongkwan; Liu, Shuo & Kim Keonhee. (2023). The study of morphological causatives through the analysis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31(4), 57-8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rphological causatives contents (grammar, examples and so on) based on the analysis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First, the causatives are commonly exhibited in the middle-level textbook but the general explanation of the main semantic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yntactic change characteristics from the basic sentence to the causative sentence, indirect/direct semantic characteristics do not appeared in each textbook. Second, the extension of the morphological causative affixes which is the recent major trend in Korean linguistics are not exhibited, further general causative affixes, ‘-이/히/리/기/우/구/추-’ are not totally presented in each textbook. Third, the causatives contents must be uniformly exhibited both in the main information body and in the exercises, but in some textbooks, there are only presented in the exercise without basic explanation about the morphological causatives. Fourth, the animacy of causer, causee of the morphological causatives are variously appeared in a balanced way. In the each Korean language textbook, all the contents about the (morphological) causative are very short, the language-universal causative are main grammar category which show the various realization methods and have association with passives, so the causative which is the unique position in the grammar category must be specifically presented in Korean language textbooks.

주제어(Key Words): 형태론적 사동(morphological causatives), 한국어 교재(Korean language textbook), 중급 교재(middle-level textbook), 사동 접사(causative affix), ‘-시키다’(-sikita), 간접/직접 사동(indirect/direct causative), 유정성(animacy)

* 제1저자

** 공동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사동의 실현 방법은 주지하다시피, 통사적 방법, 형태적 방법, 어휘적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동문 유형이 분류된다. 이러한 사동의 실현 방법 및 사동문 유형 분류에서 이론 문법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최근에 발간된 대표적인 국어 문법서에서는 사동 실현 방법 및 사동문을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1) a. 구분관 외(2015): 사동사 사동, ‘-게 하다’ 사동
- b. 유현경 외(2018): 형태론적 사동문, 통사론적 사동문
- c. 남기심 외(2019): 사동사에 의한 사동, ‘-게 하다’에 의한 사동

먼저 구분관 외(2015)에서는 사동의 종류를 크게 사동사 사동과 ‘-게 하다’ 사동으로 나누고, ‘시키다’를 비롯하여 ‘-으키-', ‘-이키-'로 이루어진 술어 부류를 모두 사동사 사동에 포함시켜 형태적 방법의 소위 ‘사동사 사동’을 가장 넓게 본다. 유현경 외(2018)에서는 사동문의 유형을 형태론적 사동문과 통사론적 사동문의 두 부류로 나눈다. 형태론적 사동문에는 기존 사동접미사 파생으로 형성되는 사동사 사동 문장과 특히 ‘시키다’도 포함하는데, 예를 들어 ‘진정시키다’, ‘복직시키다’에서, ‘진정’, ‘복직’과 ‘시키다’ 사이에 휴지를 두지 않고 발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등의 사전에서도 ‘시키다’를 사동의 접사로 보고 있기에 ‘시키다’를 사동 접사로 보아 형태론적 사동문에 포함시킨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남기심 외(2019)에서는 ‘사동사에 의한 사동법’, ‘-게 하다’에 의한 사동법’의 두 부류로 나누었고, 구분관 외(2015), 유현경 외(2018)와는 달리 ‘(X)시키다’는 ‘사동사에 의한 사동법, 곧 형태적 사동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최근 대표적인 국어문법서에서는 기존의 사동 접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외에 ‘-이우-', ‘-애-', ‘-으키-', ‘-이키’ 등도 사동 접사로 포괄하며 나아가 ‘시키다’까지 포함시키는 관점이 두드러진다.¹⁾ 범언어적인 문법범주로 다양한 실현 방식이 나타나는 보편적인 사동법에 대해 국어학(혹은 국어 교육) 관점에서 유독 형태적 사동 범주를 확장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주요 국어 문법서의 형태적 사동 확대 양상을 토대로 한국어교육 교재에 나타난 형태적 사동에 관한 메타 언어적 설명 및 예문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찰은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동과 같은 문법범주의 문법적 설명 양상과 기능부담량, 그 의의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요 논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1) 단, 고영근 & 구분관(2018)에서는 사동문의 유형을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 시키다에 의한 사동문’으로 나누어, 특히 ‘시키다’만 따로 사동문 유형으로 설정하고 있다.

간략히 살펴본다. 3장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한국어 교재 선정 기준 및 사동문 예문 추출 등에 대해 제시하겠다. 4장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사동법에 관한 전반적인 메타 언어적 설명을 살펴보고 특히 형태론적 사동에 관해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5장에서는 형태적 사동법을 기존의 사동 접사에 의해 형성되는 부류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시키다'에 의해 형성되는 부류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겠다. 특히 사동은 화자와 청자가 대면한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범주이므로 대화 등에 나타나는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유정성에 대해 살펴본다. 6장 결론에서는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한다.

2. 선행연구

사동법에 관한 한국어교육 관점의 논의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어 학습자의 사동문 습득 및 오류 연구, 둘째, 한국어 교재의 사동법 내용 분석, 셋째, 한국어와 다른 언어와의 사동문 대조 연구이다. 이 중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사동문 습득 및 오류 연구, 한국어와 다른 언어와의 사동문 대조 연구 등은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²⁾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한 사동법, 특히 형태적 사동법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선행연구 분석에서는 (2)와 같은 선행연구 주제 및 대상으로 간략히 살펴 보겠다.

(2) 선행연구 주제 및 대상

- a. 형태적 사동법의 범위(김형배, 2005, 김성주, 2019)
- b. 한국어 교재 분석(최해주, 2008, 서종학 & 강수경, 2011)
- c. 한국어교육을 위한 사동사 목록(형태적 사동법) 연구(김영일, 2022)

첫째, 형태적 사동법의 범위에 대한 선행연구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국어 문법서에서는 일반적인 사동접미사 '-이/히/리/기/우/구/추-' 외에 '-시키다'도 포함하면서 유독 형태적 사동 범주를 확장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김형배(2005)에서는 형태적 사동법을 좀 더 세분화하였다. 곧 현대 국어의 사동법 실현에 대해 일반적으로 밝히고 있는 어휘적, 형태적, 통사적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틀 하고 있으나 형태적 사동법의 하위 범주에 사동접미사에 의해서 실현되는 사동법은 '파생적 사동법'으로, '시키다'를 결합하여 실현하는 경우 '합성적 사동법'으로 처리를 하였다. 이는 '시키다'를 접미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휘로 보는 관점이다.

김성주(2019)에서는 최근 형태적 사동에 포함시키고 있는 '(X)시키다'의 사동 범주가 형

2) 이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은 유석 & 김건희(2023), 손봉위(2023)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태적 방법과 통사적 방법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였다. 형태적 사동법으로 보면 ‘-시키다’를 접미사로 볼 수 있으며 선행 명사 하나의 어기를 이용하여 선행 명사에 접미사 ‘-시키다’를 첨가하여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파생어의 논항 구조가 문맥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경우 ‘(X)시키다’가 서술어 위치에 이동해서 서술어 기능을 수행하여 통사적 사동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X)시키다’의 사동 범주를 형태적 사동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으로, 앞서 김형배(2005)에서 ‘(X)시키다’를 ‘합성적 사동법’으로 분류한 것과도 다른 분석으로 ‘(X)시키다’를 형태적 사동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재고 가능성을 보여준다.³⁾

둘째, 한국어 교재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이다. 최해주(2008)에서는 피동과 사동에 대해 한국어 문법서 및 한국어 교재 분석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 제시된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의 설명 방식은 학교 문법과 다르지 않고 매우 축소되어 제시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피동, 사동 표현의 범주가 좀더 명확히 설정되어 교재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유의미한 분석을 제시하였다.

서중학 & 강수경(2011)은 교재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사동 표현의 구성과 내용을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효과적인 교재 구성 방안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공에 그 목적을 두었다. 사동 표현의 용어 정의, 학습 내용의 범위, 형태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 등 사동의 수록 범위, 제시 순서, 학습 대상 사동사의 범위 등을 폭넓게 다루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동접미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동접미사 ‘-이/히/리/기/우/구/추’ 외에 권재일(2012), 구분관 외(2015)처럼 ‘-이키/으키’등도 포함시켜 살펴보았다.⁴⁾

이러한 두 선행연구는 비교적 일찍이 교재 분석을 한 점은 의의가 있지만, 피동과 사동을 같이 다루기도 하고, 한국어 문법서까지 포괄하여 학습자 오류 유형까지 논의하고 있어, 사동에 관한 집중적인 논의는 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셋째, 한국어교육을 위한 사동사 목록에 대한 선행연구이다. 김영일(2022)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과 ‘한국어교육 어휘 내용 개발’ 자료를 통해 사동사 목록을 추출한 뒤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동사 45개를 유형1(자동사와 형용사) / 유형2(타동사)로 나눠서 제시를 하였다. 파생접미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동사는 주동사가 자동사(행위성 자동사, 비행위성 자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타동사인지에 따라 사동문의 구성이 달라지는데 이로 인해 학습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사동사의 유형을 나눠서 제시함으로써 교수자들도 사동을 규칙화하여 교수할 수 있고 학습자들이 보다 더 구조화된 형태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X)시키다’ 사동 실현 방법에 대한 자세한 최근 논의는 김건희(2023) 참조

4) 이문화(2017)는 입말 자료인 드라마 병렬말뭉치에서 출현한 접미사 사동을 통해 한국어의 접미사 사동과 중국어 사동을 대조하여 연구하였다. 형태적 사동에 포함되는 접미사 사동을 다루었는데, ‘-애’와 같은 접미사도 사동접미사로 처리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반적으로 형태적 사동법의 범주를 확장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X)시키다'를 형태적 사동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논란이 있는 '형태적 사동법' 중심으로 한국어 교재 분석을 진행한 학술 논문은 아예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최근 발행한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형태적 사동법의 정의 및 범위, 교재의 설명 내용과 예문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

3. 연구의 분석 대상 자료 소개

사동은 한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하는 문법범주 중 하나이므로 외국인 학습자들도 이러한 사동의 범주를 인식해야 하고 사동의 실현 방법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최근 출간된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재에 실려 있는 사동의 실현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사동 범주의 교육 추세를 모색할 것이다. 교재 선정에 있어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사동 범주의 교육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재 선정 기준 및 사동문 예문 추출 방법에 대해 다음 도표와 같이 제시하겠다.

표 1. 한국어 교재 선정 기준 및 연구 방법

순서	기준
1차	2010년 이후 출간된 한국어 교재
2차	인지도가 높은 한국어 교재
3차	대표 사동 어휘 추출(해당 문법 교수 부분 - 문법교재 중심)
4차	교재 내(문법 교수 부분 제외)에서 제시된 사동사 추출 후 비교

표 1에서 제시한 선별 기준을 통해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한국어 교재는 '서울대 한국어+(2023)', '경희 한국어(2020)', '성균 한국어(2019)', '이화 한국어(2011)'이다.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일반적으로 한국어교육을 일찍부터 시작한 대학교에서 발간한 교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한국어, 경희 한국어, 성균 한국어, 이화 한국어 등이 있는데 서울, 경희, 성균 한국어는 2020년을 전후로 새로운 교재를 발간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⁵⁾ 이화 한국어는 2011년 '이화한국어'의 개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 '새 이화한국어'가 2023년 11월 1급부터 출간되고 있다.

5)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23), 서울대 한국어 플러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오수진 외(2020), 경희한국어,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성균어학원 한국어학당(2019), 성균한국어, Hawoo Publishing Inc.; 구재희 외(2011), 이화한국어, EPRESS; 이하 서울+, 경희, 성균, 이화로 칭함.

위와 같이 선택된 교재들에서 사동 문법 교수 부분을 중심으로 대표 사동 어휘를 추출하고, 그 외에 교재 다른 부분에서 제시된 기타 사동 어휘도 추출하여 앞선 대표 사동 어휘 목록과 비교, 분석하였다.

4. 사동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제시 양상

사동은 범언어적인 현상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교수항목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사동에 대해 “자신이 아닌 누군가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것”(유현경 외, 한국어표준문법, 2018, p. 552)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다만 ‘성벽을 높다다와 같이 무정물이 목적어로 나타나는 경우 ‘성벽’은 어떤 동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동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그러나 일반적인 논의대로(유현경 외, 2018) 사람으로 하여금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물이나 특정 대상에까지 일정한 동작, 사건 등을 일어나게 하는 것도 사동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한국어 교재에서 사동을 교수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정의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는지 그에 따른 메타 언어적 설명은 어떠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2. 한국어 교재에서 사동의 제시 양상

교재	제시 형태	사동의 정의	의미
서울+	사동	1)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며 주어가 목적어에 직접 어떤 행동을 할 때 사용합니다. 2) 주어가 목적어에 어떤 행위를 시키거나 허락할 때, 또는 사물이 어떤 작동을 하도록 만들 때 사용합니다. 3) 동사와 형용사 어간에 사동접미사를 결합한 사동 표현은 주어가 직접 행동을 할 때 사용하고, ‘게 하다’는 주로 간접적으로 시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직/간접
경희	사동	1) 사동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거나 어떤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 2) ‘동작동사-게 하다’의 형태로도 사동을 나타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성균	사동	‘사동’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할 때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이화	사동사	다른 사람, 동물, 사물을 움직이게 하거나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함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각 교재는 사동에 대해 ‘주어가 목적어나 다른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어떤 상태가 되게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우선 사동을 실현하는 것을 문법적으로 사

동법이라고 이른다. '서울+', '경희', '성균' 교재에서는 사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수·학습에 적용하고 있어 '형태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 의미적 사동'을 모두 아우를 수 있으나 '이화' 교재에서는 사동접미사에 의한 '사동사'(형태적 사동)만 다루고 있어 제시 범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⁶⁾ 또한 '피사동주'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서울+' 교재에서는 목적어로, '경희, 성균' 교재에서는 대상으로, '이화' 교재에서는 사물이나 동물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동의 의미 해석은 주어의 직접적인 행위에 의한 직접사동과 간접적인 행위에 의한 간접사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어 교재에서 직·간접 사동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석 대상에 있는 교재에서는 '서울+' 교재에서만 직·간접 사동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⁷⁾

5.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형태적 사동 분석

5.1.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의

일반적으로 사동은 어휘적 사동, 형태적 사동, 통사적 사동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실현이 된다. 특히 형태적 사동의 실현은 일반적으로 사동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에 의한 것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교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재에는 사동접미사에 의해 실현되는 형태적 사동의 예는 일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사동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를 어느 정도까지 제시할 것이냐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표 3. 각 한국어 교재의 사동접미사 제시 양상

교재 \ 사동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서울+	○	○	○	○	○		○
경희	○	○	○	○	○	○	○
성균	○	○	○	○	○		
이화	○	○	○	○	○		○

- 6) 통사적 사동의 형태인 '-게 하다' 구성에 대해서는 같은 장의 'part2'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함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 7) 주지하다시피 형태론적 사동문(사동접미사에 의한 사동문)도 간접적인 사동 행위와 직접적인 사동 행위가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 교재에서는 사동접미사가 결합한 사동문의 경우 직접사동으로만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다.

일반적인 사동접미사를 모두 제시하는 경우는 ‘경희’ 교재 하나뿐이었으며, ‘서울+’와 ‘이화’ 교재는 ‘-구.’에 의한 사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동접미사 ‘-구.’에 의한 사동사는 ‘돌구다, 일구다’ 등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어휘는 한국어교육용 어휘 목록에서도 주로 고급 등급에 속한다. 실질적으로 ‘-구.’에 의한 사동사의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구.’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성균’ 교재의 경우 사동접미사를 ‘-이/히/리/기/우.’만 제시하여 사동접미사 ‘-구.’나 ‘-추.’에 의해 실현되는 사동사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경희’는 ‘-이/히/리/기/우/구/추.’ 7가지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표 5와 표 6을 통해 상술하겠다.

교재마다 사동을 제시하는 순서도 차이를 보인다. 학습자들은 1급부터 한국어 학습을 시작함과 동시에 교재의 제시문이나 읽기 지문, 연습문제 등을 통해 수많은 어휘를 학습하게 된다. 사동을 학습하기 이전에 상당수의 사동 접사를 이미 접하고 있다. 적어도 3급부터는(중급 수준) 사동을 제시해야 사동 및 그와 관련된 어휘와 문법 지식을 적절하게 학습할 수 있다. 다음은 각 한국어 교재에서 사동접미사에 의한 형태적 사동을 몇 급에서 제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이다.

표 4. 교재별 형태적 사동의 제시 위치

교재	발행 시기	제시 위치
서울+	2023	3급 B
경희	2020	중급 2
성균	2019	3급
이화	2011	3 - 1

형태적 사동의 제시는 대부분 중급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⁸⁾ 하지만 1급부터 사동을 교수하는 부분까지 제시문이나 읽기 지문, 연습문제, 본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동사의 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형태적 사동을 교수하는 부분에서는 사동접미사에 따른 사동사의 대표 목록을 제시하는데 표 5와 같다. 교재마다 제시되는 사동접미사와 사동사의 개수가 다른 만큼 다소 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8) ‘서울+’ 교재: 통합형 교재로 제작되었으며 1급부터 6급까지 모두 A, B로 분권되어 있다.
 ‘경희’ 교재: 등급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으로 3분하였으며, 각 급은 1, 2로 제작되어 일반적인 6개 급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각 급은 문법, 듣고 말하기, 읽고 쓰기의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균’ 교재: 일반적인 1급~6급의 구성을 따르고 있으나, 1~4급은 ‘어휘·문법,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2권으로 나뉘어 있고, 5~6급은 ‘어휘·문법·기능’ 1, 2로 나뉘어 있다.
 ‘이화’ 교재: 통합형 교재로 일반적인 1급~6급의 구성을 따르고 있으나, 1~3급은 1, 2로 나뉘어 있고, 4~6급은 단권으로 만들어졌다.

표 5. 사동 문법 교수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교재별 대표 사동사 목록

교재	접미사	사동사
서울+	이	보이다, 높다, 먹이다, 죽이다, 붙이다, 끓이다
	히	읽히다, 익히다, 입히다, 앉히다, 눕히다, 맞히다
	리	걸리다, 놀리다, 돌리다, 살리다, 알리다, 울리다
	기	감기다, 말기다, 벗기다, 신기다, 웃기다, 씻기다
	우	세우다, 재우다, 비우다, 태우다, 씌우다, 깨우다
	추	낮추다, 늦추다
경희	이	끓이다, 먹이다, 붙이다, 속이다
	히	넓히다, 눕히다, 입히다, 앉히다
	리	놀리다, 살리다, 알리다, 울리다
	기	감기다, 남기다, 말기다, 신기다
	우	깨우다, 비우다, 세우다, 태우다
	구	달구다, 떨구다, 일구다 ⁹⁾
	추	낮추다, 늦추다, 맞추다
성균	이	보이다, 끓이다, 먹이다, 붙이다
	히	좁히다, 눕히다, 입히다, 넓히다, 앉히다
	리	울리다, 살리다, 알리다
	기	말기다, 웃기다, 씻기다, 벗기다
	우	재우다, 깨우다, 씌우다, 세우다
이화	이	먹이다, 보이다, 녹이다, 끓이다
	히	눕히다, 앉히다, 읽히다
	리	알리다, 살리다, 열리다, 울리다
	기	감기다, 남기다, 말기다, 숨기다, 웃기다
	우	세우다, 재우다, 태우다
	추	늦추다

9)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일다'는 비표준어, '일구다'는 표준어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파생접미사에 의한 사동사를 [X의 사동사]로 설명하는데 '일구다'사전 정보에는 그러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 일으키다 / ~ X게 하다' 등의 뜻풀이가 있어 사동으로 처리할 가능성을 보인다.

표 5는 사동을 교수하는 해당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동사의 예이다. 도표 등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동사의 목록이다. 사동접미사는 일반적으로 ‘-이/히/리/기/우/구/추’의 7가지를 제시하는데, ‘서울+’에서는 접미사 ‘-구’로 실현되는 사동사의 예는 찾아볼 수 없다. ‘경희’는 7개로 대표되는 사동접미사를 모두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접미사에 3~4개의 대표 어휘를 제공한다. ‘성균’은 다른 교재와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접미사의 목록을 제시하는데 ‘-구’, ‘-추’에 의해 실현되는 사동사는 전혀 제시를 하고 있지 않다. ‘이화’는 ‘서울+’와 마찬가지로 접미사 ‘-구’를 제시하지 않으며 빈번하게 노출되는 일부의 어휘 목록도 대표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다.

표 6. 각 교재의 대표 사동사 목록에 제시되지 않은 사동사의 예

교재	등급	어휘	출현 위치 ¹⁰⁾
서울 +	1A	굽히다	대화 보기
	2B	숙이다	본문, 어휘
	3B	맞추다, 끼우다 / 빠뜨리다, 떨어뜨리다, 부러뜨리다	문법, 연습, 본문
경희	초급1(문법)	채우다	연습
	초급2(듣고 말하기)	튀기다	연습
	중급1(문법)	빠뜨리다, 떨어뜨리다	어휘, 연습
	중급1(읽고 쓰기)	흘리다	어휘, 연습
	중급1(듣고 말하기)	흘리다	연습
	중급2(문법)	식히다, 끝내다, 숙이다	문법, 연습, 대화 보기
	중급2(읽고 쓰기)	터뜨리다, 일으키다	어휘
	중급2(듣고 말하기)	맞히다, 밝히다	연습, 어휘
성균	1(어휘 · 문법)	올리다, 채우다, 높이다	대화 보기, 연습
	2(어휘 · 문법)	돌리다, 숙이다	어휘, 대화 보기
	2(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낮추다, 말리다	대화 보기, 본문, 연습
	3(어휘 · 문법)	옹기다, 불리다	연습, 어휘
	3(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채우다, 비우다, 끼우다, 없애다, 안기다	본문, 연습

10) 형태적 사동의 ‘출현 위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교재	등급	어휘	출현 위치 ¹⁰⁾
이화	1-2	절이다	본문, 연습, 대화 보기
	2-1	벗기다, 줄이다	연습, 어휘, 본문
	2-2	올리다, 줄이다, 부러뜨리다	연습, 어휘, 대화 보기, 본문
	3-1	키우다, 올리다, 맞추다, 입히다, 낮추다, 높이다, 날리다, 옮기다, 밝히다, 돌리다	문법, 연습, 본문, 대화 보기
	3-2	튀기다, 비우다, 붉히다, 빠뜨리다 / 일으키다	본문, 연습

표 6과 같이 1급부터 사동을 교수하는 해당 본문까지의 교재를 분석한 결과 표 5에서 제시하는 사동사 외에도 상당수의 사동사가 노출되었다. 대체로 초·중급 수준에서 학습해야 하는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대표 사동 어휘 목록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휘가 사동을 나타내는 어휘인 것을 모르고 지나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드물게 '-뜨리다', '-오키-'에 의한 사동도 나타나는데 앞서 선행연구에서 밝힌 것과 같이(서중학 & 강수경, 2011; 권제일, 2012; 구본관 외, 2015) '-뜨리다', '-오키-'에 의한 사동도 형태적 사동의 한 범주로 포함시켜 교수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이나 선행 용언의 어간 모음에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학습자들의 오류 가능성을 키우는 것들이다. 먼저 '홀리다', '말리다', '올리다', '끝내다'와 같은 경우이다. 사동사 '홀리다', '말리다', '올리다'가 주동사로 실현되었을 때는 '호르다', '마르다', '오르다'이다. '르 불규칙' 활용으로 인해 사동접미사는 '-이-'가 결합되었지만 표면적으로는 '-리-'로 실현이 되었다. 유사한 형태로 보이는 '알리다', '놀리다', '돌리다'는 '알다', '놀다', '돌다'에 사동접미사 '-리-'가 결합된 것으로 앞의 것과 차이를 보인다. '끝내다'의 경우 주동사는 '끝나다'로 실현이 된다. 어간 모음 'ㅏ'와 사동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하나의 모음 'ㅑ'로 실현이 된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문법 교수 부분에서 설명되지 않고 바로 어휘 목록으로만 제시되는 문제점이 있다.

'성균' 교재의 경우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표 사동접미사로 '-이/히/리/기/우-'만

본문: 본문에서 나타나는 형태적 사동

어휘: 어휘나 표현 형식으로 나타나는 형태적 사동

대화 보기: 대화 보기나 일반 예문에서 나타나는 형태적 사동

문법: 문법 설명으로 나타나는 형태적 사동

연습: 연습문제로 나타나는 형태적 사동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재 2(듣기·말하기·읽기·쓰기)에서 ‘낮추다’의 예가 나타난다. ‘낮추다’는 다른 교재에서도 빈번하게 출현을 하여 ‘사동사’의 예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재의 본문, 어휘, 대화, 문법 설명, 연습 등에서 제시가 되는 사동사의 예는 상당히 많다. 빈번하게 사용되거나 노출도가 높은 사동 어휘 목록은 대표 목록에 포함시켜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사동문의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서술어의 자리값에 따라 격이 이동한다는 것이다. 서술어가 형용사나 자동사로 이루어진 한 자리 서술어 구성의 경우 주격이 목적격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주격이 출현한다. 서술어가 타동사로 이루어진 두 자리 서술어 구성의 경우 주동문의 주어는 부사격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주격이 추가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사동주(이/가)+주동 주체(을/를, 에게, 한테)+……+사동사

(유현경 외, 2018, p. 554)

앞서 보았듯이 한국어 교재에서는 대부분 접미사에 의한 형태적 사동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서술어의 자리수에 따른 사동의 실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¹¹⁾ 그러나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인 김영일(2022)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 참조할 만하다. 김영일(2022, pp. 113-114)에서는 구조에 따라 유형 ①~④는 ‘NP1-이/가 NP2-을/를 VP’로 유형 ⑤는 ‘NP1-이/가 NP2-에게 NP3-을/를 VP’로 형성된다고 밝히고 있다.

표 7. 주동사 주동문과 사동사 사동문 비교(김영일, 2022)

유형	주동사	주동문	사동사	사동문
①	올다	동생이 온다.	올리다	형이 동생을 올린다.
	행위성 자동사	행위성 자동사문	타동사	타동사문
②	끓다	떡국이 끓는다.	끓이다	나는 떡국을 끓인다.
	비행위성자동사	비행위성 자동사문	타동사	타동사문
③	늦다	노화가 늦다.	늦추다	운동이 노화를 늦춘다.
	형용사	형용사문	타동사	타동사문
④	녹다	얼음이 녹는다.	녹이다	햇빛이 얼음을 녹인다.
	비행위성 자동사	비행위성 자동사문	타동사	타동사문

11)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1(2020)’에서는 ‘사동1 / 사동2’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사동1’에서는 타동사 구문의 사동 실현을 예로 들고 있으며, ‘사동2’에서는 자동사 구문과 형용사 구문의 사동 실현을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 교재에서도 사동문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유형	주동사	주동문	사동사	사동문
⑤	먹다	아이가 밥을 먹는다.	먹이다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타동사	타동사문	타동사	타동사문
유형 ①~④	'NP1-이/가 NP2-을/를 VP'			
유형 ⑤	'NP1-이/가 NP2-에게 NP3-을/를 VP'			

'서울+' 교재의 경우 표 5에서 32개의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형용사 어근을 가지고 있는 어휘는 '높다, 낮다'의 2개, 타동사 어근을 가지고 있는 어휘는 '보다, 먹다, 읽다, 입다, 알다, 감다, 말다, 벗다, 신다, 씻다, 자다, 쓰다' 13개, 자동사 어근으로 이루어진 어휘는 나머지 15개이다.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동 어휘로는 7개가 더 제시되는데, '-뜨리다'류를 포함하여 '숙이다, 굽히다, 끼우다, 맞추다' 등이 있다. 이 어휘들을 포함해도 형용사 어근으로 이루어진 사동사는 대표 목록에 나타난 단 2개뿐이다.

'경희' 교재의 경우 25개의 어휘를 제시하고 있다. 형용사 어근을 가진 사동사는 '넓다, 낮다'의 2개, 타동사 어근을 가진 것은 '먹다, 입다, 알다, 감다, 말다, 신다, 타다, 떨다'의 8개이다. 나머지 15개는 자동사 어근을 가진 것이다.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동 어휘에 11개가 추가적으로 더 나타나는데 이중 형용사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밝다, 붉다'의 2개이다.

'성균' 교재의 경우 20개의 어휘를 대표 목록으로 제시를 한다. 형용사 어근을 가진 어휘는 '좁다, 넓다'의 2개뿐이고, 타동사 어근을 가진 어휘는 '보다, 먹다, 입다, 알다, 말다, 씻다, 벗다, 깨다, 쓰다'의 9개이다. 나머지 9개는 자동사 어근을 가진 어휘이다. '성균' 교재에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동 어휘가 14개 나타난다. 이중 형용사 어근을 가진 어휘는 '낮다' 단 1개이다.

'이화' 교재의 경우 표 5에서 20개의 어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 형용사 어근을 가지고 있는 어휘는 '늦다'의 1개, 타동사 어근을 가지고 있는 어휘는 '먹다, 보다, 읽다, 알다, 감다, 말다'의 6개, 그 외 나머지는 자동사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동접미사에 의한 사동사는 형용사 어근을 취하여서도 실현될 수 있는데, 사전에 자동사, 형용사로 모두 등재된, '늦다'를 자동사로 처리하면 형용사 어근을 취하는 사동사는 하나도 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이다. 표 6을 통해 확인해 보면, '높다, 밝다, 붉다' 등을 형용사 어근을 취하는 사동사로 제시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서울+', '경희', '성균', '이화'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되고 있는 형용사 어근의 사동사는 '높이다, 낮추다, 넓히다, 밝히다, 붉히다, 좁히다, 늦추다' 단 7개이다. 개별 교재로 제한하면 '서울+' 2개, '경희' 4개, '성균' 3개, '이화' 1개만 제시되고 있다. 네 교재 모두 형용사 어근을 취하는 사동사의 목록이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형태적 사동은 용언(형용사와 동사) 어간에 사동접미사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만큼 교재에서는 더 다양하고 균형 있게 제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5.2. ‘X시키다’의 메타 분석

‘서울+’, ‘경희’, ‘성균’, ‘이화’ 네 교재 중에 ‘경희’, ‘성균’, ‘이화’ 교재에서 ‘X시키다’에 의한 구문을 제시했는데 교재별로 ‘X시키다’ 구문의 위치는 다르게 나타났다. 다음 표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 교재 안의 연습문제, 문법, 본문 내용에서 ‘X시키다’가 출현했다.

표 8. 한국어 교재에서 ‘X시키다’의 출현 위치

교재	등급	쪽수	출현 위치
경희	중급1(읽고 쓰기)	p.30	연습
	중급2(문법)	p.168 p.216	
성균	3(듣기·말하기·읽기·쓰기)	p.80	본문
		p.239	연습
이화	3-1	p.78	문법
	3-2	p.26	연습

‘X시키다’는 ‘경희’, ‘성균’, ‘이화’ 교재에서 모두 한국어 중급 수준에서 제시가 된다. ‘X시키다’가 교재에서 나타나는 위치 정보를 보면 주로 연습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외에 ‘이화’ 교재에서 제시된 ‘X시키다’는 사동의 한 범주로 보고 ‘문법 교수’ 부분에서 제시했다. 그리고 ‘성균’ 교재에서는 사동 범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에서 ‘X시키다’를 제시했다.

네 교재 중 ‘X시키다’ 구문을 사동 범주의 실현으로 보고 문법적 양상도 덧붙여 설명한 ‘이화’ 교재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¹²⁾ ‘이화’ 교재에서는 ‘-시키다’를 형태적 사동으로 보고 형태적 사동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X시키다’ 사동의 문법 양상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3) ‘N+시키다’: ‘N+하다’ 동사는 ‘N+시키다’의 형태로 나올 때 사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 a. 오후에 아기를 목욕시키세요.
 - b. 식사 후에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산책시키세요. (이화한국어, 3-1, p. 78)

‘이화’ 교재에서는 ‘N+시키다’를 사동의 실현 범주로 보고 있다. ‘N+시키다’ 사동을 실현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

12) 최근 대표적인 국어문법서에서는 ‘X시키다’를 사동으로 인정하거나 사동으로 보는 관점이 두드러지는데, 그렇다면 사동 관점에서 ‘X시키다’ 구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N+시키다'가 'N+하다'와 서로 대체되어 사용 가능하다.

둘째, 'N+시키다'에서 선행 명사와 후행 동사 '시키다' 사이에 휴지를 둘 수 없다.

예문 (3a)를 보면 '목욕시키세요'에서 '목욕하세요'와 서로 교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목욕'이 명사이면서도 동사 '-시키다' 사이에 휴지를 둘 수 없으므로 사동문으로 볼 수 있다. 예문 (3b)도 마찬가지로 '산책시키세요'와 '산책하세요'를 서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 명사 '산책'과 후행 동사 '-시키다' 사이에 휴지 표지가 첨가될 수 없으므로 사동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N+시키다'에 의한 구문은 '이화' 교재의 조건에 의하면 사동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화' 교재에서 'N+시키다'를 사동의 한 범주로 보고 문법 양상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N+하다'와 'N+시키다'의 상호 교체 조건을 설명하는 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 'N+하다'를 'N+시키다'로 교체 가능한 구문을 모두 사동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일찍이 김성주(2003)에서는 'N+하다'와 'N+시키다'가 교체되는 상황을 논의했는데 논항 정보 및 의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따라 교체 상황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¹³⁾ 이 중에서 'N+하다' 구문의 논항 정보 및 의미가 'N+시키다' 구문과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때 'N+시키다' 구문이 사동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시키다' 앞에 선행하는 명사는 대다수의 경우 동작성을 가진 한자어에 해당되는데 이와 같은 명사의 결합 특성에 관한 설명도 교재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¹⁴⁾ 따라서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N+시키다' 사동의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보충할 필요가 있다. '이화' 교재에서는 형태적 사동법을 제시하면서 'N+시키다' 사동도 같이 제시하기 때문에 'N+시키다'를 '형태적 사동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다른 교재에서 나오는 'X시키다'의 양상을 살펴보겠다. 먼저 '성균' 교재 본문에서 제시되는 'X시키다' 구문의 양상이다.

13) 김성주(2003)에서 제시한 'N+시키다'의 유형과 특징

유형	특징
제1유형 '구경시키다'류	'시키' 동사와 항상 대당 '-하-' 동사의 사동사로 가능한 유형
제2유형 '녹음시키다'류	'시키' 동사가 한편으로는 '구경시키다' 류의 해당 '-하-' 동사의 사동사로 가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극시키다' 류의 '-시키-' 동사와 같이 대당 '-하다' 동사와 동일한 어휘 의미와 동일한 논항 구조를 가지는 유형
제3유형 '자극시키다'류	'시키' 동사가 대당 '-하-' 동사와 동일한 어휘 의미와 동일한 논항 구조를 가지는 유형

14) 최정애(2014)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는 'N+시키다'의 결합 상황을 조사했는데 '시키다'와 결합한 선행 명사로 총 3,124개를 추출했고 이 중 선행 명사가 동작성 한자어로 된 경우는 총 505개, 전체의 약 16%를 차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 (4) ‘Korea Sale FESTA’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를 더 발전시킨 행사입니다.
(성균 한국어 3 듣기·말하기·읽기·쓰기, p. 80)

‘성균’ 교재의 본문에서 ‘N+시키다’에 의한 구문을 제시했지만 문법 설명을 더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았다.

다음은 교재 연습 부분에서 제시되는 ‘X시키다’ 양상을 살펴보겠다. ‘경희’, ‘성균’, ‘이화’ 세 교재의 연습문제에서 제시된 ‘X시키다’ 구문은 다음과 같다.

- (5) a. 고민을 하다가 댄스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고 동아리 활동은 나를 변화시켰다.
(경희한국어 중급1 읽고쓰기, p. 30)
- b. 가. 지아 씨, 도시락 드세요. 여기 도시락이 반찬 수도 많고 깔끔해서 시켜 봤어요.
나. 우와, 이게 5000원짜리 도시락이에요? 정말 반찬이 많네요.
(경희한국어 중급2 문법, p. 168)
- c. 피자를 시켜서 내가 7조각을 먹었으니 피자 한 판을 혼자 다 _____.
(경희한국어 중급2 문법, p. 216)
- d. 100세대! 정기적인 확인은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성균한국어 3 듣기·말하기·읽기·쓰기, p. 239)
- e. 배우의 연기가 뛰어나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이화한국어 3-2, p. 26)

각 교재의 연습문제에서 ‘경희’에서는 단독으로 동사 ‘시키다’에 의해서 구문이 실현되는 경우도 있고 앞의 명사와 직접 결합하여 ‘N+시키다’ 구성으로 실현되는 경우도 제시되어 있다. 한국어 교재의 연습문제 부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X시키다’ 해석에 대해서 앞의 ‘성균’ 교재 본문에서 나타난 ‘X시키다’와 같이 설명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로 볼 때 최근에 출간된 대다수 한국어 교재에서는 ‘X시키다’를 사동의 실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교재 본문과 연습문제에서 빈번하게 제시되는 ‘X시키다’ 구문은 사동의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서론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국어 문법서에서는 ‘X시키다’ 구문을 형태적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최근 교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장이 사동의 의미적 특성을 드러내는지 판단할 때는 문장에서 사동의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의 발생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주동문의 주어 성분은 사동문의 목적어 자리로 이동하게 되고 사동문에 새로운 주어를 첨가하여 사동 원인 사건을 일으키는 사동주 역할을 담당시키는 것이다. 사동문 판단에 있어서 유혜원(2012)에서는 ‘명사-시키다’와 ‘명사-하다’의 문형 정보와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시키다’가 사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주동문으로

사동문을 실현하려면 '-시키다' 의미와 논항 정보의 추가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각 교재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X시키다' 구문에 이와 같은 조건을 적용하게 되면 사동문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각 교재 안에 실려 있는 '-시키다' 구문을 모두 사동문으로 가정하여 사동문에 대응하는 주동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보겠다.

- (6) a. 주동문: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가 발전하는 행사이다.
 b. 사동문: 'Korea Sale FESTA'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를 더 발전시킨 행사입니다.
 (성균한국어 3 듣기·말하기·읽기·쓰기, p. 80)
- (7) a. 주동문: 나는 변화했다.
 b. 사동문: 고민을 하다가 댄스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고 동아리 활동은 나를 변화시켰다.
 (경희한국어 중급1 읽고쓰기, p. 30)
- (8) a. 주동문: 반찬을 시켰다.
 b. 사동문: *여기 도시락이 반찬 수도 많고 깔끔해서 시켜 봤어요.
 (경희한국어 중급2 문법, p. 168)
- (9) a. 주동문: 피자를 시켰다.
 b. 사동문: *피자를 시켜서 내가 7조각을 먹었으니 피자 한 판을 혼자 다 _____.
 (경희한국어 중급2 문법, p. 216)
- (10) a. 주동문: 수명이 연장한다.
 b. 사동문: 정기적인 확인은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성균한국어 3 듣기·말하기·읽기·쓰기, p. 239)
- (11) a. 주동문: 사람들이 감동했다.
 b. 사동문: 배우의 연기가 뛰어나서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이화한국어 3-2, p. 26)

여기에서 예문 (6), (7), (10), (11) 구문은 모두 'N+시키다' 형식에 따라서 실현된 구문이므로 'N+하다' 형식에 의한 주동문이 존재한다. 'N+하다'에 의한 주동문이 'N+시키다'에 의한 사동문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어를 추가했다는 점은 각 구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예문 (11) '사람들이 감동했다'와 같이 주동문에서 'N+시키다' 사동문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새로운 주어인 '배우의 연기'가 추가되었다. 원래 주동문에서 주어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N+시키다' 사동 구문에서 목적어 자리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때 배우의 '연기가 뛰어나서'는 사동의 원인 사건에 해당될 수 있고 뒷부분에 이어진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사동의 결과 사건에 해당될 수 있다. 나머지 (6), (7), (10) 예문도 마찬가지로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논항 추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모두 사동의 의미를 갖추고 있는 사동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다만 '경희' 교재에서 제시한 (8), (9)는 동사 '시키다'에 의해 실현된 것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일반적인 사동으로 볼 수 없다.

이상으로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한 ‘X시키다’ 구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경희’, ‘성균’, ‘이화’ 교재 안에서 나타나는 ‘N+시키다’ 구문들은 의미적 차원에서 사동의 의미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X시키다’로 실현되는 사동은 문법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이화’ 교재에서는 ‘N+시키다’를 ‘형태적 사동’으로 보고 상세한 문법 설명을 제시하는 데 비해 ‘경희’, ‘성균’ 교재에서는 교재의 본문과 연습문제 안에서 ‘-시키다’ 구문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분석과 문법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5.3. 형태적 사동에 나타난 유정성

사동이라는 범주 명칭과 같이 사동은 ‘원인 사건’이 발생해야 ‘결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사동 구문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원인 사건’을 일으키는 주어를 ‘사동주’라고 칭하며 ‘결과 사건’ 행위에 참여하는 대상을 ‘피사동주’라고 칭한다. 이러한 두 가지 참여 성분은 사동 구문을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원인 사건’의 발생을 좌우하는 사동주는 [+유정성] 명사로 나타난다. ‘피사동주’도 마찬가지로 사동주의 명령을 받고 ‘결과 사건’을 실현하려면 사동 행위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여 ‘피사동주’도 [+유정성] 명사로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음 예문 (12)와 같이 ‘사동주’와 ‘피사동주’ 자리에 [-유정성] 명사가 올 때도 사동이 실현될 수 있다.

(12) 세찬 불길이 밤하늘을 밝혔다.

한국어 학습자의 사동문 습득 양상, 한국어와 다른 언어의 사동문 대조 연구에서도 주로 다루는 의미적 영역이 바로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유정성]이다. 모국어 화자가 아닌 외국인 학습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사동 범주를 사용할 때 사동 발생에 대한 일반적인 관습에 따라 ‘사동주’와 ‘피사동주’ 자리에 유정명사만 허용하고 무정명사는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할 사동 범주의 설명을 더욱 보완하기 위해 ‘서울’, ‘경희’, ‘성균’, ‘이화’ 각 교재의 ‘대화 보기’에서 제시하는 예문의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유정성] 자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13) a. 마지막으로 해물탕에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추겠습니다.
 b. 국물을 조금 버리고 양념을 더 넣어서 다시 끓여 보세요. (서울+ 3B, p. 168)
 c. 제비가 박씨를 떨어뜨리고 갔어요.
 d. 아이들에게 박속을 끓여서 먹이면 되겠어요. (서울+ 3B, p. 173)

- (14) a. 의자에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세요.
 b. 다리는 꼬지 말고 땅에 붙이세요.
 c. 왼발을 들면서 오른팔을 굽혔다가 위로 쪽 뺀어.
 d. 소비를 줄이고 돈을 아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울+ 3A, p. 173)

예문 (13)-(14)는 '서울+' 교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적 사동 중 전형적인 사동접미사 (-이/히/리/기/우/구/추-)와 '-뜨리다'가 결합된 예문이다. (13a-d)는 '사동'을 교수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문으로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유정성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문 (13a-b)는 요리와 관련된 예문으로 (13a)에서는 '사동주'가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추는 행위'와 '국물을 끓이는 행위'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유정성]으로 나타나며, '피사동주'는 각각 '간', '국물'의 사물로 나타나 [-유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13c-d)는 '홍부전'을 각색한 예문이다. (13c)는 '-뜨리다'가 사용된 예문으로 '사동주'는 '제비'로 [+유정성], '피사동주'는 '박씨'로 [-유정성]을 보인다. (13d) 역시 '사동주'는 '박숙'을 끓이는 행위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유정성], '피사동주'는 '박숙'의 [-유정성]으로 실현이 되었다. 예문 (14a-c)는 운동과 관련된 예문으로 '사동주'는 '손, 다리, 팔'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유정성]임이 확실하며, '피사동주'는 '손, 다리, 팔'로 유정성을 가진 청자의 신체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유정성]으로 볼 수 있다. 예문 (14d)에서의 '사동주'는 후행하는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 [+유정성]이다.

- (15) a. 친구가 혼자 보기 아깝다며 동영상을 올리자고 하더라고요.

(경희 중급2 듣고 말하기, p. 138)

- b. 껌질을 벗긴 후에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c. 순두부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법을 배워 보겠습니다.

(경희 중급2 듣고 말하기, p. 139)

- d. 난도가 높은 문제를 맞히면 기분도 좋고.
 e. 새로운 건물이 생기면 과거의 모습을 없애기 마련인데.

(경희 중급2 듣고 말하기, p. 143)

- f. 성곽을 쌓으려면 큰 돌을 위로 옮겨야 하는데...

- g. 무거운 건축 재료를 들어 올릴 수 있다.

(경희 중급2 듣고 말하기, p. 144)

예문 (15a-g)는 '경희' 교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문으로 형태적 사동 중 전형적인 사동접미사 및 '-애-' 사동접미사가 사용된 대화문이다. 형태적 사동을 교수하는 부분은 '경희' 중급2의 '문법' 교재이지만 대화문에 나타나는 형태적 사동을 확인하기 위해 '듣고 말하기'

에서 교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문을 가져왔다. (15a)에서 ‘피사동주’는 ‘동영상’으로 [-유정성]이며,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를 하는 주체는 ‘친구’로 ‘사동주’는 [+유정성]임을 알 수 있다. (15b-c)에서의 ‘사동주’는 ‘재료의 껍질을 벗기는 행위’와 ‘순두부찌개를 끓이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유정성]으로 나타나며, ‘피사동주’는 각각 ‘껍질, 순두부찌개’로 음식이다. 따라서 [-유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15e)는 ‘없애다’를 사용한 예문으로 ‘사동주’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과거의 모습을 없애는 행위’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유정성]으로 볼 수 있으며, ‘피사동주’는 [-유정성]으로 나타났다. (15f-g) 역시 ‘큰 돌을 옮기는 행위’와 ‘무거운 건축 재료를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하는 주체는 ‘사람’도 가능하지만 ‘중장비’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해 보인다. 따라서 ‘사동주’는 [±유정성]으로 볼 수 있으며, ‘피사동주’는 ‘큰 돌’, ‘건축 재료’로 [-유정성]으로 볼 수 있다.

- (16) a. 지금 바로 결제가 어려우시면 예약 전화라도 남겨 주세요.
(성균 3 듣기·말하기·읽기·쓰기, p. 255)
- b. 학생이시면 거기는 비워 놓아도 괜찮습니다.
(성균 3 듣기·말하기·읽기·쓰기, p. 257)
- c. 저한테 언제 국수를 먹여 줄 거냐고 했어요.
(성균 3 듣기·말하기·읽기·쓰기, p. 260)
- d. 아기에게 분유를 먹여 보세요.
- e. 저는 안 입고 조카에게 한복을 입혀요.
- f. 차 주인에게 차를 주차장에 세우라고 하세요.
- g. 연날리기를 좋아해서 공원에서 연을 날려요. (성균 3 어휘·문법, p. 200)

예문 (16a-g)는 ‘성균’ 교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문으로 (16a-c)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 교재에서 발췌하였다. (16a)는 ‘사동주’가 ‘예약 전화를 남기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유정성]으로 볼 수 있으며, ‘피사동주’는 ‘예약 전화’로 [-유정성]이다. (16b)는 명시적으로 드러난 ‘학생’이 ‘사동주’에 해당되므로 [+유정성], ‘피사동주’는 ‘거기’로 표현되는 ‘그 장소’이므로 [-유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16c)는 ‘사동주’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국수를 먹이는 행위’(=훈인을 하는 행위)의 주체이므로 [+유정성]임을 알 수 있다. (16d-g)에서도 ‘분유를 먹임, 한복을 입힘, 차를 세움, 연을 날림’의 행위는 [+유정성]을 가진 주체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6f)의 경우 부사어 ‘차 주인에게’를 명시하여 [+유정성]인 것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16d-g)의 ‘피사동주’는 모두 [-유정성]으로 나타났다.

- (17) a. 제가 아직 아기에게 우유를 못 먹였는데 30분 후에 아기에게 우유를 먹여 주시겠어요?

- b. 감기 기운이 있으니까 손하고 얼굴만 씻겨 주세요.
 c. 우유를 먹인 후에 감기약도 좀 먹여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옷을 입혀 주세요.
 (이화 3-1, p. 83)
 d. 갑자기 열이 나면 어떻게든지 열을 내려야 해요. 우선 해열제를 먹이세요. 그리고 옷을 벗기고 물건으로 몸을 씻기세요.
 e. 병원에 오시기 전에 찬물로 열을 식혀 주셨어요? (이화 3-1, p. 161)

예문 (17a-e)는 '이화' 교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화문으로 '이화' 교재의 경우 '말하기' 본문에 '모범 대화문'이 제공이 된다. (17a-c)는 '모범 대화문'에 나타나는 사동문이고 (17d-e)는 듣기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문이다. (17a-c)는 '아기 엄마(=올리아)'와 '아주머니'의 대화에서 발췌한 예문이기 때문에 '사동주'는 '올리아'와 '아주머니'가 해당된다. 따라서 [+유정성]임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피사동주' 중 '우유, 감기약, 옷'은 [-유정성], '얼굴'은 [+유정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17d-e)에서는 '아기 엄마(=올리아)'와 '의사'의 대화에서 확인이 되는 사동문이다. (17d)에서는 '해열제를 먹임, 옷을 벗김, 몸을 씻김'과 같은 행위는 '사동주'가 [+유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화문의 내용으로 볼 때 '해열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정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7e)에서 비슷한 예가 나타난다.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찬물이 열을 식히다'이다. '사동주'는 '찬물'로 [-유정성]이며, '피사동주'는 '열'로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유정성]이다.

표 9. '-이/히/리/기/우/구/추-' 사동의 '유정성' 양상

교재	예문	사동주	피사동주
서울+	(13a-d)	[+유정성]	[-유정성]
	(14a-c)	[+유정성]	[+유정성]
	(14d)	[±유정성]	[-유정성]
경희	(15a-d)	[+유정성]	[-유정성]
	(15e-g)	[±유정성]	[-유정성]
성균	(16a-g)	[+유정성]	[-유정성]
이화	(17a)	[+유정성]	[-유정성]
	(17b)	[+유정성]	[+유정성]
	(17c)	[+유정성]	[-유정성]
	(17d)	[±유정성]	[-유정성]
	(17e)	[-유정성]	[-유정성]

(5) d. 100세대! 정기적인 확인은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성균 한국어3 듣기·말하기·읽기·쓰기, p. 239)

'성균' 교재에서 제시한 예문(4)에서는 '사동주'로 'Korea Sale Festa', '피사동주'로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사동주'는 영어 표현임에도 무정명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피사동주'도 무정명사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문(5d)에서는 '사동주'와 '피사동주' 자리에 각각 '확인', '수명'의 무정명사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희' 교재의 예문을 살펴보겠다.

(5) a. 고민을 하다가 댄스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고 동아리 활동은 나를 변화시켰다.

(경희한국어 중급1 읽고 쓰기, p. 30)

예문 (5a)는 복문으로 '사동주'와 '피사동주'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 후행절의 주어인 '동아리 활동'이 사동문의 '사동주'에 해당되고, '나'는 피사동주에 해당한다. 본 예문에서는 '사동주'가 [-유정성], '피사동주'가 [+유정성]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한 'N시키다' 예문의 양은 많지 않지만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유정성] 양상은 오히려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N시키다' 사동의 '유정성' 양상

교재	예문	사동주	피사동주
이화	(3a)	[+유정성]	[+유정성]
	(3b)	[+유정성]	[+유정성]
	(5e)	[-유정성]	[+유정성]
성균	(4)	[-유정성]	[-유정성]
	(5d)	[-유정성]	[-유정성]
경희	(5a)	[-유정성]	[+유정성]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동의 실현 방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형태적 사동을 중심으로 최근 발행된 한국어 교재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추후 형태적 사동과 관련된 한국어교육 내용 설정 및 교재의 실질적인 개선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문, 연습문제 등 한국어교육 교재의 다양한 텍스트에 포함된 형태적 사동 관련 메타 언어적 설명에 대해 살펴보고, 형태적 사동 관련 예문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러한 본고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동에 관한 메타 언어적 설명 등 구체적인 논의는 주로 중급 수준에서 제시되었는데, 먼저 주동문에서 사동문이 되면서 나타나는 문장성분의 변화 등 기본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않는다. 또한 사동의 실현 방법마다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사동의 주요 의미적 특징인 ‘간접 사동/직접 사동’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지 않거나 아예 제시되지 않았다. 사동에 관한 설명이 매우 축소되어 제시된다고 지적한 선행 연구(최해주, 2008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

둘째, 최근 국어학(혹은 국어 교육)의 사동법에 관한 주요 논의 경향인 형태적 사동 확대 양상, 곧 기존의 사동 접사, ‘-이-’, ‘-하-’, ‘-리-’, ‘-기-’, ‘-우-’, ‘-구-’, ‘-추-’ 외에 ‘-이우-’, ‘-애-’, ‘-으키-’, ‘-이키-’ 등도 사동 접사로 포괄하며 나아가 ‘-시키다’까지 포함하는 관점과 달리, 한국어 교재에서는 일반적인 사동 접사, ‘-이-’, ‘-하-’, ‘-리-’, ‘-기-’, ‘-우-’, ‘-구-’, ‘-추-’도 모두 제시하는 한국어 교재도 드물었고 ‘-시키다’에 대해서는 문법 설명이 제시되는 한국어 교재는 단 한 권에 불과하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어학(혹은 국어 교육) 관점에서는 유독 형태적 사동 범주를 확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한국어 교재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전체적으로 사동에 관하여 본문과 연습문제 모두에서 균형 있게 제시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인 문법 설명도 없이 연습문제에서만 제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넷째, 한국어 교재에서 제시한 형태적 사동 관련 예문의 양은 많지 않지만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유정성] 양상은 오히려 다양하게 나타나 균형 있게 제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어 교재에서는 사동에 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소략하다. 국어학(혹은 국어 교육)의 최근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고, 주요 범주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 설명도 제시되지 않는다. 사동은 언어 보편적으로 다양한 실현 방법으로 나타나는 주요 문법범주이며 다른 문법범주인 피동과의 연계성도 있다. 물론 교재의 목적이나 유형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본적인 설명은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중급 수준의 교재에서는 본문과 연습문제 모두에서 사동의 기본 개념, 실현 방법 분류(어휘적, 형태적, 통사적 방법), 의미적 특성(직접/간접 의미)과 같은 사동의 주요 문법 내용에 대해 다양한 실제 예문과 함께 충실히 기술해야 한다.

초급 수준에서 ‘구 형식 혹은 덩어리 표현(건물을 세우다, 연을 날리다 등)’으로 일종의 어휘 암기식으로 배우던 사동사에 대해 중급 수준의 교재 본문과 연습문제 등에서 다양한 의미적, 형태적, 통사적 사동의 관점에서 학습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언어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첫째, 어휘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장성분으로 구성된 사동문과 같은 문장 단위를 이해하게 된다. 둘째, 자기 언어의 사동 표현과 비교하여 처음에는 언어 간섭으로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결국은 오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셋째, 교사의 관점에서는 충실히 기술된 교재를 통해 사동과 같은 주요 문법범주를 지나치지 않고 깊이 있게 교수할 수 있다.

남은 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고에서는 사동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형태적 사동' 위주로 한국어 교재를 살펴보았는데, 추후 '통사적 사동' 등도 더 살펴보아야 하고, 한국어 학습자의 사동 표현 오류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재에서 형태적 사동 부분에서 제시하는 '-시키다' 사동의 경우, '명령'의 어휘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추후 '명령'과 연계하여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청자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공통적인 의미기능을 가지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명령'과 '사동' 표현을 연계하여 교육함으로써 '의사소통 증진'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교육에서 효과적인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참고문헌

<논저>

- 권재일. (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 고영근, 구본관. (2018). *개정판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구본관, 박재연, 이선웅, 이진호, 황선엽. (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국립국어원. (2020).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1*. 하우
- 김건희. (2023). '(X)시키다' 사동 실현 방법 분류에 대한 재고찰 - '-시키다'는 형태적 사동이고 '시키다'는 어휘적 사동인가?- *한국어 의미학*, 81, 71-95.
- 김성주. (2003). *한국어의 사동*. 한국문화사.
- 김성주. (2019). 한국어 사동 유형으로서의 '(-)시키-' 사동. *한민족문화연구*, 67, 279-308.
- 김영일. (2020). 학교 문법의 주동과 사동 기술 내용 검토. *어문연구*, 48(2), 295-323.
- 김영일. (2022). 한국어교육을 위한 사동사 목록 선정과 제시 - 초·중급 수준의 사동사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92, 101-136.
- 김형배. (2005) 파생 사동사의 범주. *한민족문화연구*, 17, 287-306.
- 남기심, 고영근, 유현경, 최형용. (2019). *전면개정판 새로 쓴 표준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 서종학, 강수경. (2013). 한국어 교재의 사동 표현 구성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20, 199-221.
- 손봉위. (2023). 경쟁모형에 기반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사동문 습득 양상 연구 - 유정성, 격조사, 어순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80, 1-27.
- 유석, 김건희. (2023). 한중 사동법 대조 연구 - 한국어 어휘적 방법과 중국어 통사적 방법을 중심으로. *언어학 연구*, 67, 21-54.
- 유현경, 한재영, 김홍범, 이정택, 김성규, 강현화, 구본관, 이병규, 황화상, 이진호. (2018).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 유혜원. (2012). '명사-시키다' 동사에 대한 연구. *어문논집*, 65, 191-218.

- 이문화. (2017).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접미사 사동과 중국어 사동의 대조연구. *언어와 문화*, 13(4), 141-162.
- 최정애. (2014). 한자어 동작성 명사와 사동표현 '-시키다'와의 결합에 대하여. *중한언어문화연구*, 8, 103-119.
- 최해주. (2008). 한국어 피동·사동 표현의 효율적인 교육방안 연구-한국어 문법서 및 교재 분석과 학습자 오류 유형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78, 295-318.

<한국어 교재>

- 성균어학원 한국어학당. (2019). *성균 한국어 1~3(어휘·문법, 듣기·말하기·읽기·쓰기)*. Hawoo Publishing Inc.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23). *서울대 한국어 플러스 1A~3B*.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유수정 외. (2019). *경희한국어 초급1~중급2(문법 / 듣고 말하기 / 읽고 쓰기)*.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2011). *이화한국어 1-1~3-2*. EPRESS.

유명관

243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효자동)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화: (033)250-8120
이메일: jdmy2k@kangwon.ac.kr

유석

243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효자동)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
전화: (033)250-8120
이메일: shuo@kangwon.ac.kr

김건희

243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효자동)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전화: (033)250-8124
이메일: kenee@kangwon.ac.kr

Received on November 28, 2023

Revised version received on December 31, 2023

Accepted on December 31, 2023